

청소년의 가출 및 성매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정혜원* · 박성훈**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과 성매매 경험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출과 성매매를 중첩해서 경험하게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9세미만의 여자청소년 96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먼저 ‘가출한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구분하는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부모감독, 교사지지로 나타났고, 위험요인으로 가출 전 피해경험, 가출 전 비행경험, 가정방임,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덜 받는다고 느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선배나 친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피해는 덜 당하면서 비행은 많이 저지를수록 가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로 ‘가출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을 구분하는 위험요인은 성폭행 피해경험, 가출전 피해경험, 주변의 성매매경험자수로 나타났다. 즉,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친구나 선배가 많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가출전 피해경험과 주변의 성매매자 수는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반면, ‘성폭행 피해경험’은 유일하게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가출, 성매매, 청소년, 보호요인, 위험요인, 다항로짓모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원, 사회학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I. 서론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율은 일반청소년이 전년도 대비 0.1% 증가한 데 비해 위기청소년은 2.7%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a). 또한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의 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성윤숙, 2009 재인용), 많은 국내의 연구들이 가출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가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변혜정, 2012; 정혜원, 2011b). 이처럼 최근 들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가출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2. 9. 18일자).

비록 선행연구들에서도 청소년가출과 청소년성매매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는 있지만, 청소년성매매와 청소년가출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구하기보다는 청소년가출과 청소년성매매를 별개의 ‘결과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두 사건을 분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출로 인한 비행 경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 ‘청소년쉼터의 실태’ 등 주로 집을 떠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가출 자체를 예방하거나 신속한 귀가에 목표를 두는 연구가 많다.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타당성’, ‘청소년의 삶 속에서 성매매가 구성되는 과정’, ‘신빈곤 현상과 성매매 혹은 탈성매매 간의 관계’ 등 청소년성매매라는 결과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백혜정·방은령, 2009; 정혜원, 2011a 재인용). 일부연구에서는 청소년가출과 청소년성매매를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서 파악하려고도 했지만, 가출을 했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¹⁾이 성매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남성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여자청소년’으로 명명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10대 여자청소년’을 일컬어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가출이 곧 성매매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가출한 청소녀들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를 경험하고, 다른 청소녀들은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는 ‘청소녀의 가출’과 ‘청소녀의 성매매’라는 결과적 사건이 상호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왜 일부 청소녀들에게는 두 사건이 상호 중첩되어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한 청소녀의 일부가 성매매를 경험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는 원인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주요한 관심 중 하나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다(김신희, 2008; 정혜원, 2009; 한상철, 2010; 정익중·김세원, 2011).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개념은 청소년의 성매매 연구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홍봉선·남미애, 2009).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함은 물론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부수적 차원에서 다룰 뿐, 여자청소년, 즉 ‘청소녀’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정혜원, 2011b).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여자청소년, 즉 ‘청소녀’만으로 한정한 후 가출과 성매매 경험여부를 중심으로 청소녀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을 구분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가출과 성매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출성매매 청소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녀의 성매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전통적으로 서구의 사회서비스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은 청소녀의

성매매를 청소년 시기의 가출과 관련된 비행의 일부로 간주하였다(Flowers, 2001; Gray, 2005; Kreston, 2005; Mitchell et al., 2010 재인용). 이러한 시각은 최근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에서 점차 ‘상업적인 성 착취’ 비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Mitchell et al., 2010). 미국에서도 한 때는 소년사법제도를 통해 비행이나 법위반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접근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매매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Ashley, 2008;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5; Friedman, 2007). 영국 또한 과거에는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하였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학대와 성 착취’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3년에 제정된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에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명백한 아동학대로 명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은 여자청소년뿐 아니라 남자청소년에게도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과 안전, 남녀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험에 빠진 청소년을 즉각적으로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업적인 성 착취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기회의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홍봉선, 2007).

한국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부터는 ‘원조교제’라는 명칭을 ‘청소년성매매’로 바꾸는 것을 계기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종휘, 2001; 김은실, 2001; 남미애, 2001; 박동균, 2001; 이경재, 2001; 심희기, 2002; 김연주, 2004; 손희권, 2003; 정규석 외, 2003; 허경미, 2003; 도미향·윤지영, 2004; 박성수, 2004; 이해경 외, 2004; 김성천, 2005; 유문무, 2005; 김주희, 2006; 허영희, 2007; 윤선미, 2011).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성주의 관점’이다(이효희, 1998; 조한혜정, 2000; 민가영, 2000; 김은실, 2001; 김연주, 2004; 변혜정, 2006; 이주영, 2006; 민가영, 2009). 일례로

이효희(1998)는 십대 청소녀들이 성을 매매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민가영(2000)도 청소녀들이 거리로 유입되는 과정과 가출기간 중 겪게 되는 ‘몸’의 경험이 어떻게 성별화 되는지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설명하였고, 김은실(2001)은 한국의 청소녀의 성매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김연주(2004)는 성매매 십대여성을 ‘희생자 또는 영리하고/까진 청소녀’로 간주하는 이분법을 넘어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가출과 성매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윤선미(2011)는 청소년의 장기 가출 경험을 폭력과 빈곤, 소통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가정과 학교를 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해석하면서, 장기가출의 상황에 처한 청소녀일수록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손쉬운 ‘노동/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계층과 연령이 상호 교차하는 방식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신빈곤층 청소녀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및 그들의 자활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민가영, 2009; 김연주, 2010). 이러한 여성주의 관점의 연구들은 ‘문제’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청소녀의 주체성을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가출이나 성매매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임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성별 위계구조와 성차별 문화, 더 나아가 성을 둘러싼 계급, 제도,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청소녀가 처한 사회구조와 청소년문화라는 틀 안에서 청소녀의 성매매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청소녀의 성매매를 청소년시기에 겪게 되는 성적 착취와 피해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발달적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의 연구들은 청소녀를 ‘피해자’로 여기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담론’을 생산해 낸다. 즉 발달적 관점은 청소녀의 성매매 현상을 ‘미성숙한’ 청소녀와 ‘성숙한’ 성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녀를 보호와

구제, 선도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법적보호 및 처벌 등 사후처리와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연구(백혜정·방은령, 2009), 성매매 청소년의 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치료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연구(유은주, 2005), 청소년의 성매매가 더 확장되거나 새로운 성매매 유형으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연구(홍봉선·남미애, 2009)가 있다. 특히 유은주(2005)는 성매매 청소년의 경험에서 중심적 현상이 ‘자존감 상실’의 과정임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바라는 성매매 경험 이후의 삶은 ‘성매매에서 벗어나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의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 제도적인 개선과 관련하여 홍봉선(2007)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범사업과 기관 간 협력 및 당국의 개입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봉선·남미애(2009)의 연구 역시 한국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욕구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검토한 후, 성매매 청소년이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된 후부터 사회복지의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의 성매매를 일종의 범죄나 비행으로 간주하는 ‘형사법적 관점’이다(박동균, 2001; 박성수, 2001; 성용은·조현빈, 2010).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매매의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이경재, 2001; 안경옥, 2002). 이러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타당성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개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상당수 연구들은 성구매자인 남성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인터넷 공개방법의 타당성, 범죄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 가능성, 이중처벌 가능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주요한 테마로 다룬다. 둘째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성매매의 원인 및 실태, 예방책을 제시한 연구이다(유문무, 2005; 성용은·조현빈,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청소녀의 성매매에 대한 미시적 관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앞서 살펴본 대로 청소녀의 성매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적 원인을 강조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법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성매매 청소녀를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이들을 일방적인 사회적 피해자로 여기는 가정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녀를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t)로 간주한다면, 이들의 행위는 동일한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행위결과에 이를 수 있다. 즉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 구조적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행위가 발생하는 미시적 조건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듯이 성매매 청소녀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을 한국사회의 주어진 조건이라고 할 때,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청소녀들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선행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청소녀의 가출’과 ‘청소녀의 성매매’를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가출’과 ‘성매매’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청소녀 집단이 어떤 요인에 의해 가출이라는 행위, 성매매라는 행위로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가출과 성매매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일부 청소녀들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출 및 성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녀의 가출 및 성매매의 유입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²⁾

2) 청소녀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

1) 보호요인

(1) 개인영역과 관련된 보호요인

개인영역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는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사회유능감, 가부장의식이 있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키드(Kidd, 2008)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존중감, 사회적 연관성, 안정적인 애착이 보호적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그는 뉴욕시와 토론토시에 거주하는 208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닥친 위협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가출의 위협과 레질리언스(resilience)³⁾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보호요인은 자기존중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에게서 낮은 자기존중감과 성비행 간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김준호·김은경, 1994).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general theory)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거나 흥분하기 쉬우며, 위험스러운 행위를 좋아하고, 단순하고 쉬운 일을 즐겨하며, 정신적 사고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에 있다. 홍봉선·남미애(2007)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거나 성매매를 유지하는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사회문화요인 등 5개의 요인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성매매로의 재유입청소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성매매요인, 관계요인, 시설요인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홍봉선·남미애, 2009). 다른 한편으로 여성가족부(2010b)에서 발간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정연구’에 따르면, 탈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는 자기행동에 대한 자각, 탈성매매 지향적 사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 사회적 지지를, 탈성매매의 위험요인으로는 성에 대한 높은 허용성과 성매매에 대한 가치의 둔감화,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부정적 자기상,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 손쉬운 고소득에 대한 환상과 성매매 재유입 용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선희(2009)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정적인 노동경험, 성매매경험이 있는 또래와의 교류 및 그러한 또래의 지지가 성매매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최근 사회복지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대한 연구이다. 레질리언스란 한국어로 회복성, 탄력성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더 강해지고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유성경 외, 2000).

따라서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비교적 화를 잘 참아내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소 복잡하고 진취적인 일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의 의도와 기대를 이해하게 되며, 즉각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욕구,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기만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기광도, 2011). 그러므로 자기통제력이 강한 청소년이라면 ‘거리의 삶’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및 환경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유능감이 높을수록 가출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부장적이라는 성별에 따른 성차별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것으로 남성지배적인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배럿(Barret, 1998)은 가부장제가 현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제가 이데올로기인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체계로서 사회의 재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사회구성원들이 가부장제를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은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고, 자신의 몸에 대해 무관심하며, 성매매에 대한 자기 인식도 부족하고, 성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가부장적 성역할을 내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부장적의식의 내면화 정도가 클수록 가출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족 관련 보호요인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있다⁴⁾. 사회유대

이론은 주위사람들과의 애정적 결속과 같은 유대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부모나 학교 등의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 동기를 통제함으로써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다. 특히 사회유대이론은 한국사회에서 보다 잘 적용되어 왔으며,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정혜원, 2009).

사회유대이론을 주창한 허쉬(Hirschi, 1969)는 사람들이 사회적 법률 준수행위를 하도록 하는 네 가지의 유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네 가지의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일탈을 저지르는 확률이 적어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유대의 첫 번째는 중요한 타자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다. 애착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적 결속, 존경심, 동일시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감정적 혹은 정서적 요소로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유대에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는 ‘관여(commitment)’이다. 관여는 비용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관례적 행동에 투자한 것을 잃을 위험을 말한다. 세 번째는 관례적 행동에 대한 ‘참여(involvement)’이고, 네 번째는 ‘신념(belief)’이다. 신념이란 사회 가치의 체계와 규범에 대한 동의와 인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애착은 사회적 유대 중에서 가장 각광받아 왔다(Demuth and Brown, 2004; McLeod et al., 1994; 김두섭 · 민수홍, 1996; 기광도 · 이희길, 2002; 김정옥 · 박경규, 2002; 정소희, 200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 중에서 친밀한 타자와의 애착을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중요한 타자에 대한 애착의 개념을 국내에서는 중요한 타자와의 애정, 그리고 감독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중요한 타자와의 애정은 애착으로, 중요한 타자와의 결속에 근거한 내적 보호는 감독(monitoring)으로 측정할 것이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나 감독 등 부모의 양육태도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주요한 요인들이다.

4)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여기서 부모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자’라고 할 수 있다.

(3) 학교 관련 보호요인

학교 관련 보호요인으로는 교사지지가 있다. 교사지지는 교사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성희·박소영, 2010). 교사지지는 부모지지 혹은 친구지지만큼 가출청소년에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도 있지만,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관이나 교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모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외부적 지지체계로 청소년 발달 시기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Germcazy, 1993). 실제로 국내에서는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위험요인

(1) 개인과 관련된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우울불안, 공격성이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한 성인이나 노숙인보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가출청소년의 길거리 생활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경험이 된다(Whitbeck et al., 2007). 특히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DeMan, 2000; Unger et al., 1998).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가출 후 더욱 증폭된다(Whitbeck et al., 2007). 정경은·문성호(2008)는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출청소년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조성희·박소영, 2010 재인용). 또한 뢰버와 디시온(Loeber and Dishion, 1983)은 공격성이 청소년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패링턴(Farrington, 1978) 역시 청소년 초기의 공격성이야말로 이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2) 가족과 관련된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영역에서의 위험요인으로는 학대, 방임, 가정불화가 있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등은 청소년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의존대상이 없어진다는 점과, 성숙한 독립체로서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이 문제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된다(정익중, 2006; Ostrowsky and Messner, 2005). 청소년들은 신체·정서·성적인 학대경험과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그들의 심리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명진 외, 2007).

질버트(Silbert, 1981)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60% 정도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가족외상이 청소년성매매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

방임⁵⁾은 그 영향이 학대에 비하여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방임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은 다양하고 장기간 지속되며, 청소년의 일탈을 촉진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은 감정적, 신체적, 성적인 학대로 인해 가출로 내몰리기도 한다. 가출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한 성매매, 마약, 포르노 거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생존 방식에 노출되고, 약물 중독, 갯단 및 불량 청소년과의 접촉, 반사회적 행동이 발견된다(Chesney-Lind and Shelden, 2004).

(3) 또래 관련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또래의 존재이다. 차별접촉 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친구들과 접촉할 때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혹은 모방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아 비행친구는 중요한 비행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Akers, 1977; 이성식, 1999; 노성호, 2006). 이러한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또래가 있을 경우

5) 과거에 방임은 학대의 하위범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학대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김신희, 2008)

성매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모방을 통해 성매매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4) 비행 및 성 관련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행 및 성 관련 위험요인으로서는 비행피해, 비행가해, 성폭행 등이 있다. 남미애(2001)는 임신, 성병,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성매매 경험이 높으며, 비행 및 성관련 피해가 다른 변인에 비해 성매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은 비행에 더 많이 노출되어 쉽게 비행에 연루되고 경찰에 구속되는 확률이 높다(Barrett, 1998;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 그 외에도 남미애(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행과 성 관련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약물경험이 많을수록, 성폭행 경험이 많을수록, 경찰에 구속된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성매매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영신(2006) 역시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⁶⁾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설문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재학 중인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여자청소년으로 일반

6) 이 연구는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행한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Ⅱ」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표집을 진행하였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모집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으로⁷⁾,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multi-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였다.⁸⁾ 일반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루어졌고, 이러한 표집과정을 통해 수거된 설문지 총 600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3부를 제외한 총 587부를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가출청소년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출경험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여자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나, 가출청소년의 모집단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표집이 아닌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거리’, ‘보호관찰소’,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으로 나누어 유의표집방법으로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설문은 총 400부로, 이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383부를 최종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일반청소년 587명과 가출청소년 383명 등 총 970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이 다른 집단과 어떤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7) 홍봉선·남미애(2010)에 따르면, 첫 성매매 연령이 15~16세인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설문이 주로 회고식 내용임을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8) 1단계에서는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제1권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제2권역은 구로구·관악구·금천구·동작구, 제3권역은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제4권역은 은평구·마포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제5권역은 도봉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 제6권역은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이다. 6개 권역별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2단계에서는 권역별 규모에 따라 층화를 한 후, 규모비례확률표집방법에 따라 일정 수의 중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학교에서 반을 선정하여, 해당 반의 모든 여학생을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9) 구체적으로 ‘거리 청소년’은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근거하여 7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조사하였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본조사에 앞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실시했던 가출청소년 아웃리치에 참여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동선택과 일시선택 아웃리치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를 하였는데, 사전에 가출경험이 있거나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수를 파악한 후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위기교육센터’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은 독립변수의 수준들이 이루는 각 조합에서 종속변수 범주들의 반응도수(count)가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일반화한 다항분포는 종속변인의 범주가 세 개 이상일 때 적용된다. 명목형 종속변인에 대한 로짓모형은 기준범주(baseline-category)를 선택한 후에 기준범주와 나머지 각 범주와 짝을 지어 로짓을 정의한다(Agresti, 2007). 다항로짓모형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많은 경우 오즈비(odds ratio)로 해석을 한다(Long, 1997). 예를 들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준범주(n)에 비해 m번째 범주보다 오즈비($\Omega_{m|n}(x)$)만큼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Omega_{m|n}(x) = \frac{\Pr(y_i = m|x_i)}{\Pr(y_i = n|x_i)} = \frac{\exp(x_i\beta_m)}{\exp(x_i\beta_n)} = \exp(x_i[\beta_m - \beta_n])$$

2. 변인의 측정

1) 종속변인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 그리고 성매매를 경험한 가출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종속변인은 가출경험유무와 성매매경험유무를 기준으로 나눈 세 개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 가출경험 및 성매매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구분(종속변인)

		성매매경험		계
		있다	없다	
가출경험	있다	1집단 97 (10.1)	2집단 279 (29.1)	376 (39.2)
	없다	3 (0.3)	3집단 581 (60.5)	584 (60.8)
계		100 (10.4)	861 (89.6)	960 (100.0)

우선 첫 번째 집단은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집단이며, 두 번째 집단은 가출경험은 있으나 성매매경험은 없는 집단이고, 세 번째 집단은 가출경험도 성매매경험도 없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1집단은 10.1%(97명), 2집단은 29.1%(279명), 3집단은 60.5%(581명)으로 나타났다.¹⁰⁾

2) 독립변인

이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설문문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가출 및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 보호요인

① 사회유능감

사회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 “나는 말썽이 될 만한 일이나 사람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한다”, “나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운다”, “나는 건강을 잘 돌본다”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64로 나타났다.

② 자기통제력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 0.627로 나타났다.

10) 분석에 포함된 최종설문이 970부인데 비해 총계가 960명인 이유는 가출경험과 성매매경험 질문에 대한 무응답은 집단 구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성매매경험은 있으나 가출경험이 없는 3명은 흥미로운 사례이기는 하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③ 자기존중감

이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을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는 역부호화 하였고, 신뢰도 값은 0.804로 나타났다.

④ 법위반 태도

법위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세어야 한다”, “용감하고 스릴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법이나 규율을 어길 수 있다”, “내가 필요하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약간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의 5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값은 0.811로 나타났다.

⑤ 가부장의식

가부장의식에 대한 내면화는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 0.638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인의 기술통계

요인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960	2.80	0.41	1	4
	자기통제력	961	2.38	0.58	1	4
	자기존중감	961	2.79	0.53	1	4
	법위반태도	962	2.06	0.56	1	4
	가부장의식	955	2.21	0.69	1	4
	부모애착	955	2.80	0.76	1	4
	부모감독	963	2.78	0.81	1	4
	교사지지	951	2.56	0.77	1	4
위험요인	우울불안	953	2.35	0.68	1	4
	공격성	960	2.42	0.67	1	4
	성폭행피해경험	961	0.14	0.34	0	1
	가출전피해경험	924	0.44	0.88	0	5
	가출전비행경험	915	0.93	1.65	0	7
	가정학대	961	1.66	0.74	1	4
	가정방임	958	1.52	0.59	1	4
	가정불화	959	1.78	0.86	1	4
	주변의성매매경험자수	961	1.66	1.00	1	5
	권위내면화	952	3.12	0.58	1	4

⑥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중요한 타자’와의 애착을 말하며, “부모님(가족)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가족)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가족)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6문항으로 측정을 하였고, 신뢰도는 0.927로 나타났다.

⑦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중요한 타자’의 보호를 의미하며,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

(가족)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 0.904로 나타났다.

⑧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교사로부터 보호와 위로, 애정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측정은 “나는 학교 선생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신뢰도 값은 0.833로 나타났다.

(2) 위험요인

① 우울불안

우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우울한 경우가 많다”, “나는 잠을 설치는 편이다”, “나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신뢰도 값은 0.861로 나타났다.

② 공격성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를 한다”, “만일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는 반드시 되받아친다”,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면 나는 언제나 맞서 싸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우는 편이다” 등 4문항으로 측정을 하였고, 신뢰도 값은 0.822로 나타났다.

③ 성폭행 피해경험

성폭행 피해경험이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출 전에 누군가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없다(0)’,

‘있다(1)’로 측정하였다.

④ 가출 전 피해경험

가출 전 피해경험은 ‘심하게 맞기(폭행)’,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심하게 놀림당하기’, ‘협박당하기’, ‘따돌림(왕따)당하기’ 등 5개의 피해항목 중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⑤ 가출 전 비행경험

가출 전 비행경험은 ‘남을 심하게 때리기(폭행)’,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 따돌림(왕따) 시키기’ 등 7개의 비행항목 중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⑥ 가정학대

가정학대는 부모나 가족에 의해 청소년이 경험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님(가족)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거나 심하게 욕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미워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가끔 나를 너무 무섭게 대하신다”라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 0.960으로 나타났다.

⑦ 가정방임

가정방임이란 주양육자의 양육태만이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정방임을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별로 확인을 안 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술을 마셔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어라 하지 않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 기를 살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꾸중하지 않는다” 등 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 0.862로 나타났다.

⑧ 가정불화

가정불화는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외적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운다”,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 0.825로 나타났다.

⑨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

성매매 경험은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를 “친한 친구들 혹은 선배들 중에서 1년 동안 조건 만남(원조교제, 성매매)과 같은 행동을 한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⑩ 권위의 내면화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위의 내면화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배가 지시하는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명령에 따르는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권위의 내면화는 “나는 선배가 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에 따른다”,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나와 친한 선배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값은 0.658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보호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관련 보호요인, 가족관련 보호요인, 학교관련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 집단별로 보호요인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사회유능감을 비롯한 모든 보호요인에서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과 관련한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유능감,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법위반태도, 가부장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유능감의 경우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의 평균은 2.53,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의 평균은 2.68,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이 없는 집단(3집단)’의 평균은 2.90으로 3집단에 비해 2집단과 1집단의 사회유능감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3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집단의 평균이 2.58, 2집단의 평균은 2.59, 3집단의 평균은 2.25로 나타나,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이 없는 집단(3집단)’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통제력은 1집단과 3집단, 2집단과 3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과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이 없는 집단(3집단)’ 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다른 두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보호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ANOVA) 결과

변인	집단 구분			F값	사후분석
	1집단	2집단	3집단		
사회유능감	2.53	2.68	2.90	56.26 ***	(1/2)(1/3)(2/3)
자기통제력	2.58	2.59	2.25	43.10 ***	(1/3)(2/3)
자기존중감	5.25	5.59	5.86	12.93 ***	(1/3)(2/3)
법위반태도	2.26	2.21	1.96	26.49 ***	(1/3)(2/3)
가부장의식	2.34	2.35	2.13	10.94 ***	(1/3)(2/3)
부모애착	2.33	2.59	2.98	51.07 ***	(1/2)(1/3)(2/3)
부모감독	2.24	2.46	3.03	85.02 ***	(1/2)(1/3)(2/3)
교사지지	2.10	2.32	2.74	51.46 ***	(1/2)(1/3)(2/3)

1집단: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 2집단: 가출만 경험한 집단/ 3집단: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 없는 집단

*** p<0.001

자기존중감의 평균점수는 1집단 5.25, 2집단 5.59, 3집단 5.86으로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이 없는 집단(3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자존감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법위반 태도에서는 1집단의 평균이 2.26, 2집단의 평균이 2.21, 3집단의 평균이 1.96으로 1집단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법위반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른 두 집단과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2집단과 1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의식의 평균점수는 1집단 2.34, 2집단 2.35, 3집단 2.13으로, 사후분석을 통해 볼 때, 3집단과 다른 두 집단과는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련 보호요인으로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부모애착의 경우 1집단의 평균은 2.33, 2집단의 평균은 2.59, 3집단의 평균은 2.98로, 3집단의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 간에 부모애착의 정도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다.

부모감독의 평균점수는 1집단 2.24, 2집단 2.46, 3집단 3.03으로 3집단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애착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학교관련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교사지지의 경우 1집단의 평균은 2.10, 2집단은 2.32, 3집단은 2.74로, 1집단보다는 2집단이, 2집단보다는 3집단이 교사로부터 위로와 애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더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험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위험요인 역시 보호요인과 마찬가지로 세 집단별로 위험요인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위험요인은 크게 개인관련 위험요인, 가족관련 위험요인,

또래관련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표 4>에서와 같이 권위의 내면화를 제외한 대부분 위험요인에서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1집단의 평균은 2.68, 2집단의 평균은 2.53, 3집단의 평균은 2.22로,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우울불안감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과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이 없는 집단(3집단)’의 우울불안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두 집단과 1집단 간의 우울불안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위험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ANOVA) 결과

변인	집단 구분			F값	사후분석
	1집단	2집단	3집단		
우울불안	2.68	2.53	2.22	34.36 ***	(1/3)(2/3)
공격성	2.69	2.63	2.27	37.06 ***	(1/3)(2/3)
성폭행피해경험	0.55	0.16	0.05	108.63 ***	(1/2)(1/3)(2/3)
가출전피해경험	1.10	0.37	0.35	32.80 ***	(1/2)(1/3)
가출전비행경험	1.64	1.88	0.37	101.83 ***	(1/3)(2/3)
가정학대	2.04	1.88	1.49	43.50 ***	(1/3)(2/3)
가정방임	2.01	1.81	1.30	133.99 ***	(1/2)(1/3)(2/3)
가정불화	2.28	1.98	1.61	38.33 ***	(1/2)(1/3)(2/3)
주변의성매매경험자수	2.96	2.13	1.21	260.76 ***	(1/2)(1/3)(2/3)
권위내면화	2.15	2.08	2.06	0.78	

1집단: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 2집단: 가출만 경험한 집단/ 3집단: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 없는 집단

*** $p < 0.001$

공격성의 평균점수는 1집단 2.69, 2집단 2.63, 3집단 2.27로, 1집단의 공격성 또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일수록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공격적 성향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관련 위험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죄피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경험을 성폭행피해 경험과 다른 피해경험으로 나누어 차이를 비교하였다. 성폭행피해경험의 경우 1집단의 평균점수가 0.55, 2집단은 0.16, 3집단은 0.05로 나타나, 1집단에 속한 청소녀의 절반이상이 성폭행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가출만 경험한 청소녀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성폭행피해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출 전 피해경험에서도 2집단과 3집단 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1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성폭행 이외에도 다른 범죄피해경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의 청소녀일수록 가출 전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가출 전 비행경험에서는 다소 상이한데, 가출 전 비행경험의 경우 1집단은 1.64인데 비해 2집단은 1.88로 더 높게 나타나,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에 속한 청소녀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피해 경험보다는 비행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과 관련한 위험요인으로 가정학대의 경우 1집단의 평균은 2.04, 2집단은 1.88, 3집단은 1.49로,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의 부모 또는 가족의 학대 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1집단 2.01, 2집단 1.81, 3집단 1.30으로 1집단의 가정방임 수준이 높았고, 가정불화에서도 1집단 2.28, 2집단 1.98, 3집단 1.61로 1집단의 가정불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이러한 세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의 청소녀일수록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무관심과 학대는 청소녀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관련 위험요인으로 설정한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는 1집단의 평균이 2.96, 2집단의 평균이 2.13, 3집단의 평균이 1.21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어, 성매매 경험이 있는 또래와의 관계가 가출 및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친구나 선후배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의 내면화는 1집단 2.15, 2집단 2.08, 3집단 2.06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가출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앞서 집단 간 차이를 통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이는 변인 간 상호통제 하에서 영향력을 검증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상호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변인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 5>에서와 같이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출과 성매매 경험한 집단(1집단)’에서는 보호요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하나도 없는 반면, 위험요인 중에서는 성폭행 피해경험 및 가출 전 피해경험과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호요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들이 위험요인과의 상호통제 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역시 다른 요인과의 상호통제 하에서는 세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친구나 선배가 많을수록 준거집단(가출만 경험한 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수값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한 결과,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단순히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무려 6배 이상[$\exp(b)=6.23$]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이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소년의 적지 않은 숫자가 가출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며, 성폭행경험이 청소년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재확인시켜준다.

〈표 5〉 가출 및 성매매에 대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결과

집단구분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 (1집단)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 없는 집단 (3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1.756	-0.79		3.548	2.01 *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0.544	-1.32	0.58	0.906	2.64 **	2.47
자기통제력	-0.358	-0.94	0.70	-0.315	-1.21	0.73
자기존중감	-0.354	-0.98	0.70	-0.619	-2.28 *	0.54
법위반태도	-0.234	-0.65	0.79	0.223	0.88	1.25
가부장의식	0.006	0.02	1.01	-0.277	-1.61	0.76
부모애착	-0.092	-0.29	0.91	0.024	0.10	1.02
부모감독	-0.071	-0.26	0.93	0.429	2.18 *	1.54
교사지지	0.069	0.35	1.07	0.397	2.44 *	1.49
위험요인						
우울불안	-0.187	-0.62	0.83	-0.349	-1.59	0.71
공격성	0.308	1.11	1.36	0.151	0.71	1.16
성폭행피해경험	1.830	5.48 ***	6.23	-0.705	-1.86	0.49
가출전피해경험	0.597	3.53 ***	1.82	0.532	3.30 **	1.70
가출전비행경험	-0.157	-1.83	0.85	-0.525	-5.79 ***	0.59
가정학대	-0.211	-0.85	0.81	-0.251	-1.21	0.78
가정방임	0.206	0.81	1.23	-0.968	-3.77 ***	0.38
가정불화	0.183	0.93	1.20	0.152	0.86	1.16
권위내면화	0.029	0.11	1.03	0.104	0.52	1.11
주변의성매매경험자수	0.503	3.46 **	1.65	-1.380	-8.06 ***	0.25
사례수	816					
Log likelihood	-403.047					
χ^2 (자유도)	615.590(36)					
Pseudo R ²	0.433					

¶준거집단: 성매매는 하지 않고 가출경험만 있는 집단(2집단)

* p<0.05 ** p<0.01 *** p<0.001

가출 전 피해경험 역시 성매매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 전에 친구들로부터 금품갈취나 따돌림, 놀림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이 $82\%[(1.82-1) \times 100]$ 나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설 자리를 잃은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맨 아래에 위치한 사회적 약자라고도 볼 수 있다.

또래관련 위험요인으로서 청소년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나 선배가 얼마나 많은지도 성매매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오즈비를 살펴보면,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수가 1명 증가할수록 이들이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이 $65\%[(1.65-1) \times 100]$ 나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나 선배를 통해 학습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이 없는 집단(3집단)’의 경우에는 보호요인에서는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부모감독, 교사지지가, 위험요인에서는 가출 전 피해경험, 가출 전 가해경험, 가정방임,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에 비해 사회유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더 받는다고 느낄수록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자기존중감의 경우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에 비해 자기존중감은 낮게 나타나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유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출 및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이 2배 이상[$\exp(b)=2.47$]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감독할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출 및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은 각각 2배 이상[$\exp(b)=2.18$, $\exp(b)=2.44$]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유능감, 부모감독, 교사지지는 청소년들이 가출 및 성매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출 전 피해경험의 정도, 가출 전 비행의 정도, 가정방임,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출 전에 비행을 적게 저지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가출 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준거집단(2집단)과 1집단, 준거집단(2집단)과 3집단을 구분하는 공통적인 위험요인은 가출 전 피해경험과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인 반면, 준거집단(2집단)과 3집단을 구분하는 위험요인은 가출 전 가해경험과 가정방임이라는 사실이다. 즉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전 다른 학생에 비해 피해는 덜 당하면서도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은 비행경험은 더 많았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62\%[(1-0.38) \times 100]$ 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폭행피해경험은 ‘가출만 경험한 집단(2집단)’과 ‘가출 및 성매매 모두 경험한 집단(1집단)’을 구분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한국에서 가출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가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다고 해서 모두 성매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경험하는 반면, 다른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 ‘일반 청소년’의 차이를 가져오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출과 성매매를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원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성폭행피해경험’, ‘가출 전 피해경험’,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친구나 선배가 많을수록 준거집단(가출만 경험한 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이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소년의 적지 않은 숫자가 가출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동시에 성폭행경험이 청소년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재확인시켜준다. 제임스와 마이어딩(James and Meyerding, 1977)도 136명의 성매매여성과 일반여성을 비교한 결과, 성매매여성이 일반여성에 비해 ‘문제가 있는(problematic)’ 성경험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성매매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부정적인(negative)’ 성경험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성(폭행) 경험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캐나다 퀘벡주의 여성지위청 보고서 역시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과 성매매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¹¹⁾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성폭행 경험이나 성경험이 청소년 스스로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보다 쉽게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정혜원, 2011a).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가출한 청소년에게서 ‘버린 몸’이라는 순결 이데올로기와 ‘거리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의 욕구가 동시에 결합될 때, 성매매에 진입하거나 지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11) Conseil du statut de la femme, Prostitution: Time to Take Action (published May 2012, Québec) accessed November 2.
www.csf.gouv.qc.ca/modules/fichierspublications/fichier-29-1657.pdf

점도 말해준다고 하겠다. ‘가출전 피해경험’ 역시 성매매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기회를 갖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동료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맨 아래에 위치한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래관련 위험요인에서는 청소년의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나 선배가 얼마나 많은지가 성매매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나 선배를 통해 학습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친구효과’를 강조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보호요인에서는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부모감독’, ‘교사지지’가, 위험요인에서는 ‘가출전 피해경험’, ‘가출전 가해경험’, ‘가정방임’,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사회유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더 받는다고 느낄수록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자기존중감의 경우에는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자기존중감은 낮아,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출 전에 비행을 적게 저지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그리고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을 구분하는 공통적인 위험요인은 ‘가출전 피해경험’과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인 반면,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을 구분하는 위험요인은 ‘가출전 가해경험’과 ‘가정방임’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나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피해도 덜 당하고, 주변의 성매매경험자 수도 적으며,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은 비행경험은 많으면서, 부모가 방임적으로 양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폭행 피해경험'이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 모두 경험한 청소년'을 구분하는 핵심요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조두순 사건', '김순철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한국사회에는 아직까지도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비행소년'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성폭행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유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현실적으로 가정뿐 아니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까지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부모와 불우한 가정으로부터 내몰린 청소년을 학교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줄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거리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개념의 부재로 인해 자신이 성적 학대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지역사회, 학교, 가정이 함께 청소년의 성 건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와 지역사회는 가출한 청소년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소 혹은 전문상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의 신설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확인하고 찾는 일일 것이다.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리 아웃리치’와 ‘사이버 아웃리치’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가출만 하는 청소년’과 ‘가출 후 성매매까지 이르게 된 청소년’가 어떠한 미시적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층적 지위와 같은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데(민가영, 2008),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하며, 왜 가출 후 성매매에 이르는지에 대한 사회구조적 맥락,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요인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기광도(2011).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 22(2), pp.5-30
- 기광도·이희길(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 정연구 16, pp.7-27
- 김두섭·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천(2005). 청소년의 성보호, 중앙법학 7(3), pp.57-80
- 김신희(2008).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주(2004). 길을 묻는 아이들, 서울: 책세상
- 김연주(2010). 신빈곤층 십대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하나의문화
- 김은정(2010) 저소득층십대여성들의 성매매와 사회화과정에 대한 일연구, 한국가족학회지 22(3), pp.31-72
- 김정옥·박경규(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7(1), pp.93-115
- 김종휘(2001).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13(2), pp.55-75
- 김주희(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4, pp.133-180
-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남미애(2001).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학연구 18(1), pp.271-306
- 노성호(2006).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모델의 검증, 사회과학

- 논총 22, pp.57-83
- 도미향·윤지영(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1), pp.19-33
- 민가영(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 민가영(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20(1), pp.173-202
- 박동균(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3, pp.39-66
- 박성수(200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 pp.91-121
- 박성수(2004). 청소년비행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혜정·방은령(2009). 청소년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혜정(2006).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상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담지원자의 입장에서, 한국여성학 22(3), pp.5-272
- 변혜정(2012). 십대여성의 가출과 폭력피해 실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성용은 조현빈(2010). 한국 청소년의 성비행 대책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 pp.125-165
- 성윤숙(2009). 여자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희권(2003).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청소년학연구 10(4), pp.93-119
- 심희기(2002). 성매매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 한국형사정책학회 14(2), pp.75-103
- 안경옥(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49, pp.5-33
- 여성가족부(2010a).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b).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정연구, 여성가족부
유문무(2005).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19(2), pp.163-194
- 유성경·이소래·송수민(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한국청소년
상담원
- 유은주(2005). 성매매 청소년의 체험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pp.143-
163
- 윤선미(2011). 집을 찾는 여정으로서 가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재(2001). 미국 행형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 형사정책연구 46,
pp.225-248
- 이명진·조주연·최문경(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
향, 사회연구 14, pp.9-42
- 이선희(2009). 여자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1999). 청소년범죄에 있어 긴장과 통제-확대된 두 이론의 검증, 한
국공안행정학회보 8, pp.191-214
- 이주영(2006). 재가출 경험을 통해 본 십대 가출여성의 정체성 연구, 서강
대학교 석사논문
- 이해경·이경성·신현숙(2004).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유무를 변별하는 사회
심리적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pp.297-315
-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
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정경은·문성호(2008).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
지 5(1), pp.219-241
- 정규석·조정자·유순화(2003).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청
소년학연구 10(3), pp.239-259
- 정소희(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
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0, pp.185-213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pp.133-159

정익중·김세원(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pp.197-230

정혜원(2009).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혜원(2011a).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Ⅰ):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혜원(2011b).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Ⅱ):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성희·박소영(2010). 가출경험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11), pp. 289-315

조한혜정(2000). N 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발달학회지 13(3), pp.1-8

최영신(2006). 여자 비행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과 처우, 교정연구 31, pp.61-88

한상철(2010). 청소년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pp 125-149

허경미(2003).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 pp.227-259

허영희(2007).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법학연구 15(1), pp.81-108

홍봉선(200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pp.387-424

홍봉선·남미애(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홍봉선·남미애(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홍봉선·남미애(2010).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겨레신문 2012. 9. 18일자 사회면 기사: '조건만남' 아저씨들은 제가 미성

년자인거 알아요

- Agresti, Alan(2007). *An Introduction to Categorical Data Analysis*, 박태성·이승연 공역(2009), 범주형 자료분석 개론(제2판). 자유아카데미
- Akers, Ronald, L.(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 Ashley. J.(2008). Child sex exploitation study probes extent of victimization in Illinois(Research Bulletin), Illino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uthority.
- Barrett, D.(1998).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perpetrators in our mids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12(3), pp.475-487
- Chesney-Lind, Meda, and Randal G. Shelden(2004).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 DeMan, A. F.(2000). Predictors of adolescent running away behavior,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 An International Journal*, 28(3), 261-267
- Demuth, S., and Brown, S. L.(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pp.58-82
- Farrington, D. P.(1978). Family Backgrounds of Aggressive Youth, In L. A. Hersov., & M. Berger, *Aggression and Air-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Press.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2005). Innocence lost arrests: National crackdown on child prostitution. Retrieved from <http://www.fbi.gov>.
- Flowers, R. B.(2001). *Runaway kids and teenage prostitution: America's lost, abandoned,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Friedman, S. A.(2007). Alternative report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er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Brooklyn, NY: ECPAT-USA(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 Germcazy(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Interpersonal & Biological Processes* 56(1), pp 127-136
- Gottfredson, M.,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y, E. S.(2005). Juvenile courts and sexual exploitation: A judge's observations, In S. W. Cooper, R. J. Estes, A. P. Giardino, N. D. Kellogg & V. I. Vieth(Eds.), *Medical, legal, and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ornograph,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pp 711-714). St. Louis, MO: G. W. Medical Publishing.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and Meyerding(1977). Early sexual experience and pro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2), pp. 1381-1385.
- Kidd, S., and Shahar, G.(2008). Resilience in Homeless Youth: The Key Role of Self Este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2), pp.163-172
- Kreston, S. S. (2005).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In S. W. Cooper, R. J. Estes, A. P. Giardino, N. D. Kellogg & V. I. Vieth(Eds.), *Medical, legal, &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ornograph,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pp 745-788). St. Louis, MO: G. W. Medical Publishing.
- Loeber, R., and Dishion, T. J.(1983). Early predictore of male

- delinquency A review, *Child Development*, 94, pp.68-98
- Long, Scott J.(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CA: SAGE Publications, Inc.
- McLeod, J. D., Kruttschnitt, C., and Dornfeld, M.(1994). Does parenting explain the effects of structural conditions on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A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Social Forces*, 73(2), pp.575-604
- Mitchell, K. J., Finkelhor, D & Wolak, J.(2010). Conceptualizing Juvenile Prostitution as Child Maltreatment: Findings from the National Juvenile Prostitution Study, *Child Maltreatment*, 15(1), pp.18-36
- Ostrowsky, M. K. & Messner, S. F.(2005).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463-476
- Silbert, M. H. & Pines, A. M.(1981) Sexual child abuse as an antecedent to prostitution. *Child Abuse and Neglect*, 5, pp.407-411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and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pp.134-157
- Whitbeck, L., Hoyt, D., Johnson, K., and Chen, X.(2007). Victimization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2, pp. 721-734

Abstract

The effects of protection and risk factors on female juveniles' runaway and their prostitution

Jung Hye-Won* · Park Seong-Ho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female adolescents has experienced runaway and prostitution and exams what protection and risk factors could affect them to involve in female student's prostitution through the empirical research. We collected the data which are 960 cases of female teenagers between 14 and 19 years old who lived in Seoul. We use to analyse the data with multilogit model.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protection factors which distinguish runaway teenagers and ordinary ones are social efficacy, self-esteem, parental monitoring, and support from teachers, the risk factors are violent victimizations in their schools, nonintervention of parents,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prostitution around one. It means that the probability of runaway and prostitution is getting lower as one's social efficacy is higher, parental monitoring is higher, nonintervention of parents is lower, feeling of support from teachers is higher, the number of persons experiencing a prostitution around one is lower.

Second, this research shows that significant factors distinguishing runaway female teenagers and teenaged girls who experienced both runaway and prostitution are rape victimization, violent victimizations in their schools,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h. D.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 D.

prostitution around one. It means that female teenag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oth runaway and prostitution when they have been victimized from rape and other types of crimes and have the number of persons experiencing prostitution. In specific, it is worth to note that violent victimization in the schools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prostitution around one influence teenaged girls who experienced runaway as well the ones who experienced both runaway and prostitution, while rape victimization only influences on teenaged girls who experienced both runaway and prostituti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 suggests the prevention strategies from the schools and the communities to reduce female adolescents' prostitution.

Key words: runaway, female teenager's prostitution, protection factor, risk factor, multilogit model